"'천년의 화엄성지' 전통·현대 조화 이끌겠다"

'취임 100일' 지리산 대화엄사 23대 교구장 우석 스님

수행·포교 최적 공간 '모범 도량' 유지
매월 1회 작품 전시·시연 '문화재의 날'
가칭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등 추진도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 23대 교구장 우석 스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20일 대화엄사 내 범음료에서 '새로운 변화, 미래로 100년'을 주제로 열렸다. /이연상 수습기자

"으뜸 수행 도량이자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사찰로 자리잡은 화엄사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 23대 교구장 우석 스님은 20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날 대화엄사 범음료에서는 '새로운 변화, 미래로 100년'을 주제로 우석 스님 취임 100일 기념 행사가 개최됐다.

우석 스님은 "거룩한 삼보 전에 머리 숙여 정례를 올린다"며 "화엄사는 서기 544년에 연기조사에 의해 창건돼 1천5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불교 정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격(寺格)도 퇴락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도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종단의 정화불사 이후 도광·도천 두 큰 스님의 덕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화엄사 21-22대 주지였던 초암 덕문스님 덕에 대중의 수행과 화합에 으뜸이 되는 '수행 도량'이자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 사찰'로 자리잡았다"며 "23대 주지(교구장)로서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임기 동안 한국 불교를 선도하는 '모범 도량 대화엄사'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행·포교 최적 공간 유지 ▲대화엄사 문화재의 날 ▲사찰정원 문화공간 활용 ▲불교 편람 제작 ▲가칭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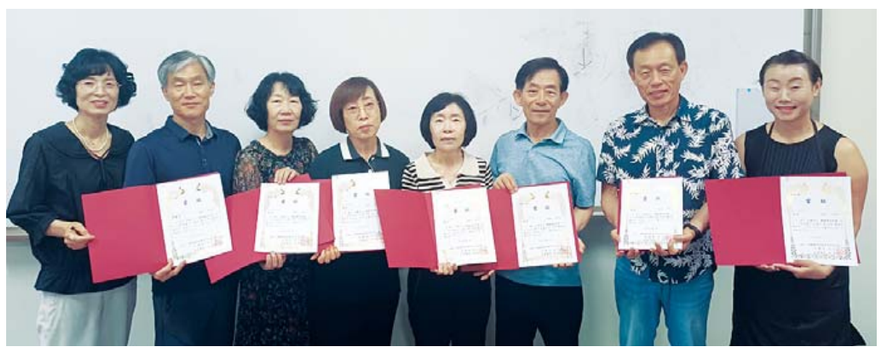
문화재의 날은 매월 1회 기능 보유자의 작품을 전시·시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남 유형문화제인 '보제루'를 국민 휴식 공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아웃도어 템플스테이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포교 강화책의 일환으로 사찰이 수행을 넘어 힐링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우석 스님은 "현재 화엄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부처님 말씀에 재행무상이라 하듯이 시대도,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화엄사를 만들겠다고 사부대중에게 약속드린다"며 강조했다.

덧붙여 "행사를 준비·진행하는 데 있어 힘든 부분이 많으나, 이는 화엄사의 재정적 여유 확보가 아닌 '행복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라며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선학교에서 수학한 우석 스님은 화엄사 재무국장 및 포교국장, 구례 사성암과 여수 향일암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3월 열린 산중총회에서 화엄사 23대 교구장으로 선출됐고 5월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연상·윤찬웅 수습기자



광주여대 평생교육원 서예반 '서도대전' 대거 입상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평생교육원 서예반 수강생들이 '제18회 서도대전'에서 대거 입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도대전은 사단법인 한국서도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했다.

한국 서예의 전통과 예술성을 기리고자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대회로, 역량 있는 서예가들이 참여하는 서예계의 대표 행사다.

이번 대회에서 수강생 이영미·윤여정·김유수·명영균·최영범·박영남·오영숙·나순순·이명옥·백금씨가 각 부문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가자들은 오랜 기간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개성과 깊이가 담긴 작품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 받았다.

손명동 평생교육원장은 "수강생들의 열정과 강사의 헌신적인 지도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수강생들이 전문성을 키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목포상의, 지역 인재 육성·기업 경쟁력 강화 협약

목포상공회의소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스마트인재개발원과 지역 기업의 인재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기업 인재 육성 참여 및 지원 ▲정보·교육 교류 및 홍보 지원 ▲기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기업들은 보다 체계적인 인재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세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여수경찰-금호피앤비화학 '범죄 예방' 협약

여수경찰서가 금호피앤비화학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서 소통마루에서 양 기관은 청소년 비행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경찰서가 선정한 취약 지역에 이동형 CCTV, 안심반사경, LED 보안등 설치와 지하통로·무지개 계단 도색 등을 지원해 주민들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한 여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윤병태 나주시장 초청 포럼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키우리, 이사장 김보곤·원장 양승학)은 20일 오전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및 광주·전남 지역 학계·기관·단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8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새로운 영산강 시대 개막, 균형발전 선도 도시 나주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해 호응을 얻었다. /안태호 기자

무안 청소년수련관 '여름아 놀자' 성료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은 "최근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여름맞이 프로그램 '여름아, 놀자'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청소년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자외선차단제, 모기기피제, 부채, 쿨팩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며 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을 체험했고, 전사지 접시, 슈링클스 지비츠, 이중 텀블러, 실팔찌, 캠핑 미니어처 제작 등 다양한 공예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웠다.

김산 군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계절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광주서부교육지원청-굿네이버스, 다문화 학생 지원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과 굿네이버스 광주지부가 광산구 지역 다문화 학생 지원에 힘을 모은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20일 소회의실에서 이성철 교육장, 강신철 광산교육지원센터장,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광산구 지역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정·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활동 지원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정서적·보호적 지원 활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이를 통해 광산구 지역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교육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옥 기자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광주과학고 '금·은·동' 획득

광주과학고등학교는 "최근 중국 산둥성 지닝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에서 금·은·동 각각 1개씩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는 지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학술대회로 개인 부문과 다국적 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28개국 122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과학고 안지후(3학년) 학생이 개인 부문과 다국적 팀 부문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다국적 팀별 경쟁 부문 중 지구시스템 연구과제(ESP)에서 금메달을, 야외 탐구과제(ITFI)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론 시험 및 야외 지질 조사'를 평가한 개인 부문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안지후 학생은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학술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함께하는 중요한 무대라고 느꼈다"며 "지구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준상 광주과학고 교장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창의 융합형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광양 홍보대사 조승환씨 미얀마에 1억여원 기부

광양시 홍보대사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조승환(사진 가운데)씨가 홍보모델 계약료 전액을 미얀마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조씨는 진행워터웨이와 홍보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를 전액 기부했다.

조씨는 오는 11월14일 미얀마 고마다 사원에서 '얼음 위 맨발 서 있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며 같은 날 사원 내 1천m 깊이로 조성되는 식수 우물 준공식에도 참석한다.

이번 공사는 미얀마 화폐 단위 짯(MMK) 기준 약 1억7천만짯(한화 약 1억710만원) 규모로, 전액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후원에는 조 대사를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가수 김다현, 박향진 호원종합병원 이사장, 김기윤 판다팜 회장, 이명렬 동광사우 대표, 이은영 은영씨의꽃피는바다 대표, 이병노 가원농원 대표, 방송인 노민, 양평군 소재 사찰 옥불사 등이 함께했다.

정인화 시장은 "조승환씨가 광양시를 세계에 알리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뜻깊은 나눔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모임

▲광주매일신문 제1기 전남글로컬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정현택) 8월 모임=21일(목) 오후 6시30분 남악 시골집.

행사

▲제4회 '죽화경(竹花景)' 유럽수국축제(대표 유영길)=31일(일)까지 장미정원 죽화경, 개장시간 : 오전 9시30분-오후 6시 담양군 봉산면 유산길 71(유산리 474). 이용 안내 : 010-8665-7884.